

건축문화 **사람**

Vol.047 10. OCTOBER 2013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람**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3. 10

047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정체된 광주시 구도심에 변화와 활기를 불어 넣어줄 “광주폴리Ⅱ” 는 지금...



인터뷰_ 사람&issue

전북/조이폴 건축사사무소 **최근영** 건축사



인터뷰_ 螢窓雪案

전남/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시론 02

이제는 “사람냄새 나는 도시를 말할 때” 이다 _ 조용준

기획 03

정체된 광주시 구도심에 변화와 활기를 불어 넣어줄 “광주폴리Ⅱ” 는 지금...

설계경기 04-05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설계경기 / 마을공동체협력(커뮤니티)센터 설계경기

동양건축 06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_ 1부 >> 마당으로 보는 3국 건축_이왕기

사람 & issue 07

전북 조이폴 건축사사무소 **최근영** 건축사와의 만남

특별기고 08

3부 /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_ 김광현

螢窓雪案 09

전남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와의 만남

기고문 11

공직자에게 ‘오작교’ 정신을_ 안용훈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이제는 “사람냄새 나는 도시를 말할 때”이다!



조 용 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조선대학교건축학부 명예교수

산업적·경제적 합리성과 기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던 산업사회 도래와 함께 나타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그리고 베이비 붐 시대를 거치면서 급증한 도시인구는 도시의 토지값을 크게 상승 시켰음은 물론,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최고로 끌어 올려 놓았다.

18세기후반에 영국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기술발달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한 산업사회 도래는 기원전부터 산업혁명까지 수천년 동안 보다 수백 배 더 크게 발전하고 변화되게 하여 왔다. 특히 산업사회 도래는 왕과 신의 도시라고 불리우던 중세도시에서 크게 억압당하던 건축의 자유를 비롯하여 여러 자유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 하게도 도시에서 사람소외로 이어졌다.

즉, 화석연료의 강력한 지원 아래 이루어진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문명의 발달은 산업적·기능적 합리화라는 이름아래 사람들에게 무한에 가까운 편리함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을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기계가 도시를 지배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선진 나라들 보다 산업사회 도래가 훨씬 더 늦었지만, 어느 선진국 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하면서 도시는 인구 급증 등에 따른 당면한 도시문제의 해결에 급급해왔다. 그 결과 도시에서 사람은 물론 역사적·자연적 자산의 가치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선진 나라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까지도 도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선진 도시들 보다 더 많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도시가 되어간 것이다.

테오도로폴 김의 주장처럼 사회전반이 경제적 합리성과 기능성을 최대가치로 여기면서 도시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보다는 생산증가를 위한 기능적 활동의 지원이 주목적이 되었다. 도시주택으로 정착한 아파트는 경제성과 기능성을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여 규모별로 건축되면서 계층문화의 형성은 물론, 소득계층별로 거주 지역을 구분하게 하였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요새처럼 출입문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등 도시는 점차 배타적이 되어서 거주

계층간의 소통마저 되지 않게 되었다.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공공공간도 건물이나 도로로 채워지면서 사람들은 건물안으로 내몰림으로 인해 이웃 사촌관계는 사라지고, 지역문제에 대해 자율적 처리능력도 점차 상실되어 갔다.

도시문화와 삶의 여유를 만들던 언덕이나 하천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 갔고, 역사적 자산은 단지 시간의 경과점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사람냄새를 가장 많이 나게 하던 전통시장들도 외부자본의 거대한 판매조직에 밀려서 고사 직전 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던 산업사회도 기계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 인구증가의 둔화 또는 감소, 소자녀 고령화 사회도래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차 그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

더불어 사람들의 지향성도 양에서 질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공허한 메아리 같았던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이고, 이는 토지이용이 거대하게 단일화 돼버린 살풍경의 도시가 아닌, 세심하게 배려된 사람냄새가 나는 도시다”라던 故 강병기 교수의 주장이 이제야 이해되어 설득력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를 만드는 제도나 수법, 관습은 아직도 산업사회시대 그대로가 많다. 따라서 사람냄새 나는 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행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잔재들을 걷어내야 한다.

그간 자가용이 지배하던 영역을 대중 교통수단에 내주어야 하고, 자동차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논두렁길 같은 인도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도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변의 진리처럼 고수되어 온 용도·지역지구도 바뀌어져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의 생산라인처럼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건축도 다시 융합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도시들은 산업적 경제적 합리성이 최대의 가치가 되던 산업사회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서 사람냄새 나는 도시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이는 21세기 전반부에 도시의 최대 과제이자 우리의 책무이다. 사람 냄새나는 도시만들기에 건축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



▲정년퇴임식 사진
조용준 교수는 지난 8월 30일 정년퇴임식을 갖고, 현장 활동가로서 지역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다.

익산시 건축사는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건축환경조성
찬란한 역사문화도시의 자긍심으로
살아 숨쉬는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지역 건축사회 현주역 회장외 회원일동

권영욱 / 영 건축사사무소
김경태 / 엠·에스 건축사사무소
김대운 / 린 건축사사무소
김영길 / 선 건축사사무소
김용주 / 성림 건축사사무소
김종왕 / 담 건축사사무소
김창호 / (주)대성 건축사사무소
김형노 / 선형 건축사사무소
문경민 / 신도 건축사사무소
박승용 / 도원 건축사사무소
박종문 / 건축사사무소 마루
박창균 / 예다음건축사사무소

반진호 / 참하늘 건축사사무소
배철용 / 청 건축사사무소
빙인섭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소정훈 / 훈 건축사사무소
송준태 / 아키존 건축사사무소
안영목 / 건축사사무소 대지
오치광 / 한울 건축사사무소
윤미순 / 미 건축사사무소
이상규 / 일원 건축사사무소
이영민 / 민 건축사사무소
이재희 / 연안 건축사사무소
이중철 / 가나 건축사사무소

정진팔 / 정 건축사사무소
정희진 / 힘찬 건축사사무소
조두석 / 극동 건축사사무소
조상민 / 상민 건축사사무소
차승조 / 우인 건축사사무소
채준섭 / 보람 건축사사무소
최남재 / 삼원 건축사사무소
최영배 / (유)영창 건축사사무소
최재웅 / 예일 건축사사무소
추연철 / 추 건축사사무소
현주역 / 수 건축사사무소
황금정 / 우리 건축사사무소

정체된 광주시 구도심에 변화와 활기를 불어 넣어줄 “광주폴리II”는 지금...

- 광주 정신의 건축적 형상화를 시도하는 광주폴리II는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5·18의 역사적 공간을 환기시켜....
-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는 준공식... 광주비엔날레 폴리 관계자, “오는 11월 15일 참여자가 초대해 준공식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혀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1년 ‘광주폴리’ 를 ‘문화중심도시 광주’ 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승효상 건축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의 작품을 설치해 큰 이슈가 되었다. 그 후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광주폴리II에 대한 계획(본지 43호-2013년 5월호 게재)이 실행됨에 따라 광주지역 구도심지역에 점차 모습이 들어 나고 있다. 설계와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져 준공식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광주폴리II에는 이동식 폴리인 틸새호텔(서도호 作), 탐구자의 전철(락스미디어 콜렉티브 作), 포장마차(아이 웨이웨이 作)등이 기획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지난 10월 6일 이들 이동식 폴리를 제외한 5개 폴리의 현장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 보았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신부처럼 마지막 몸단장을 하고 있는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의 탄생을 독자와 함께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광주폴리II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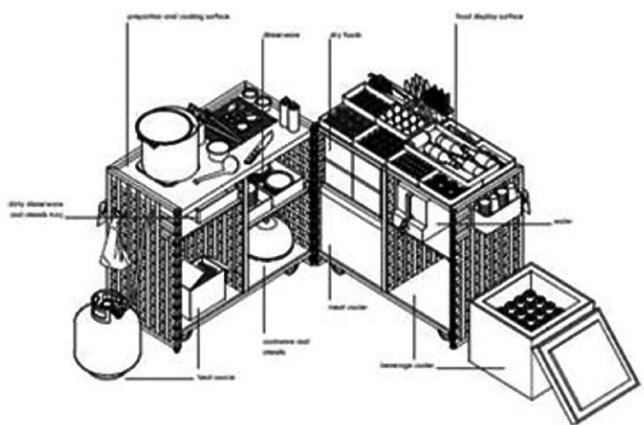
[이동식 폴리]



▲①틸새호텔(서도호 作)



▲⑤탐구자의 전철
(락스미디어 콜렉티브 作)



▲⑧포장마차(아이 웨이웨이 作)

[고정식 폴리]

- ②투표(램 쿨하스 & 잉고 니어만 作)
- 위치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도로
- 컨셉 :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길거리 여론조사



- ③광주천 독서실(데이비드 아자예 & 타이에 셀라시 作)
- 위치 : 광주천 천변
- 컨셉 : 천변과 천(징검다리), 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문학 공간



- ④유네스코 화장실(슈퍼플렉스 作)
- 위치 : 광주공원 입구
- 컨셉 :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 상임위원 화장실 복제



- ⑥혁명의 교차로(에알 와이즈만 作)
- 위치 : 광주역 앞 교통섬
- 컨셉 : 인권을 이야기하는 미디어 커뮤니티 룸



- ⑦기억의 상자(고석홍 & 김미희 作)
- 위치 :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인근
- 컨셉 : 광주와 광주시민의 기억을 담은 미니 전시공간



4_ 설계경기

온가족이 즐겁게 체험하고 함께하는 친환경 목장 체험시설 설치로 축산업 교감 및 자립형 복합축산 모델을 제시하고자 종합적인 공간으로서 전남 축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설계공모방식을 통하여 공모함.

발 주 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 공모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설계경기

당선작 강필서 건축사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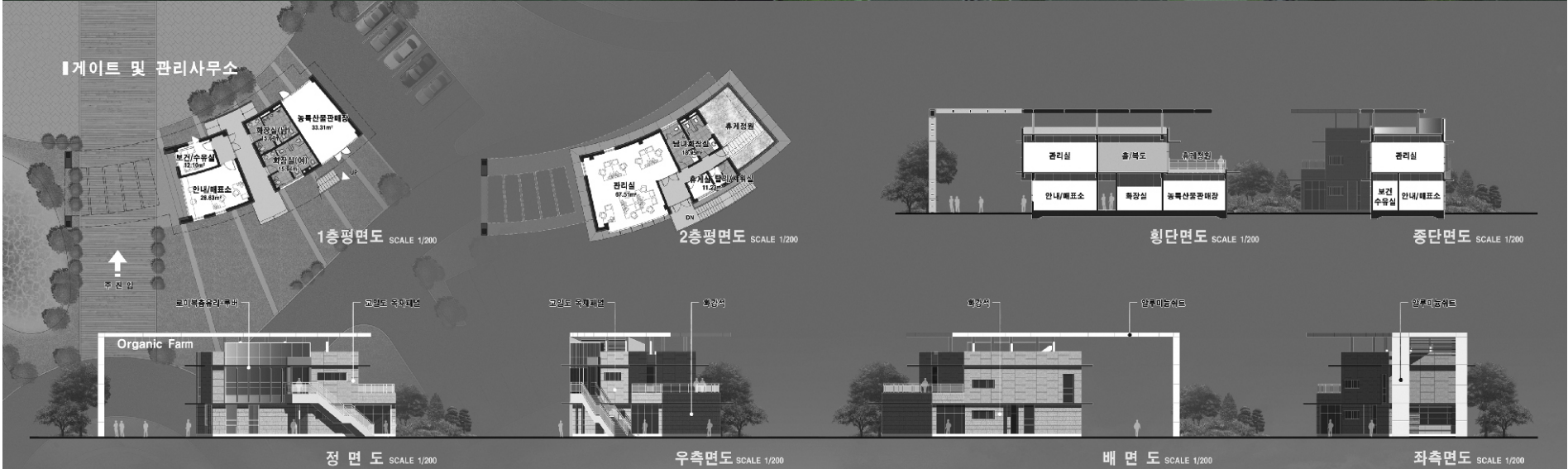
- 당 선 작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 우 수 작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요청으로 미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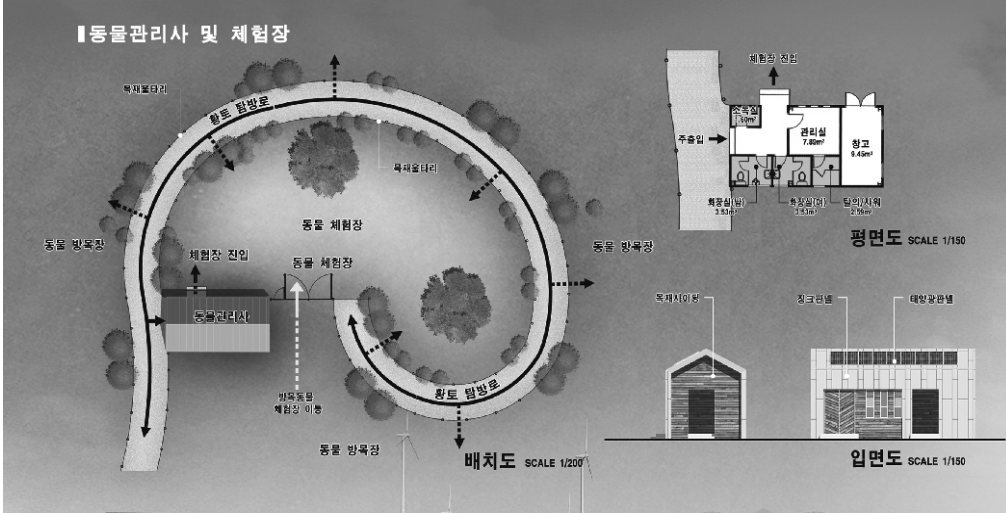
설계개요

명 칭 :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대지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작전면 용상리 5-1번지와 2필지 일원
지역 지구 : 계획관리지역, 연구시설(전라남도농업기술원축산연구소)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도로 현황 : 남서측 15M도로, 북서측 12M도로
대지 면적 : 57,360m²
건축 면적 : 72,40m²
면 적 : 346,16m²
조경 면적 : 29,026.16m²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 폐 율 : 0.475% (법정 : 70%이하)
용 적 륜 : 0.603% (법정 : 500%이하)
규 모 : 지상2층
주차 대수 : 설치 30대 (장애인1대 포함, 관리-7대 / 이용객-23대)
/ 법정 5대
외부마감 : 알루미늄페넬, 고밀도합성석재,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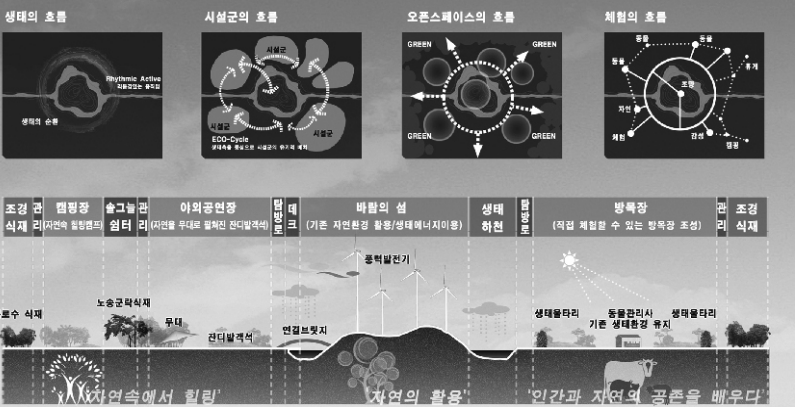
게이트 및 관리사무소



동물관리사 및 체험장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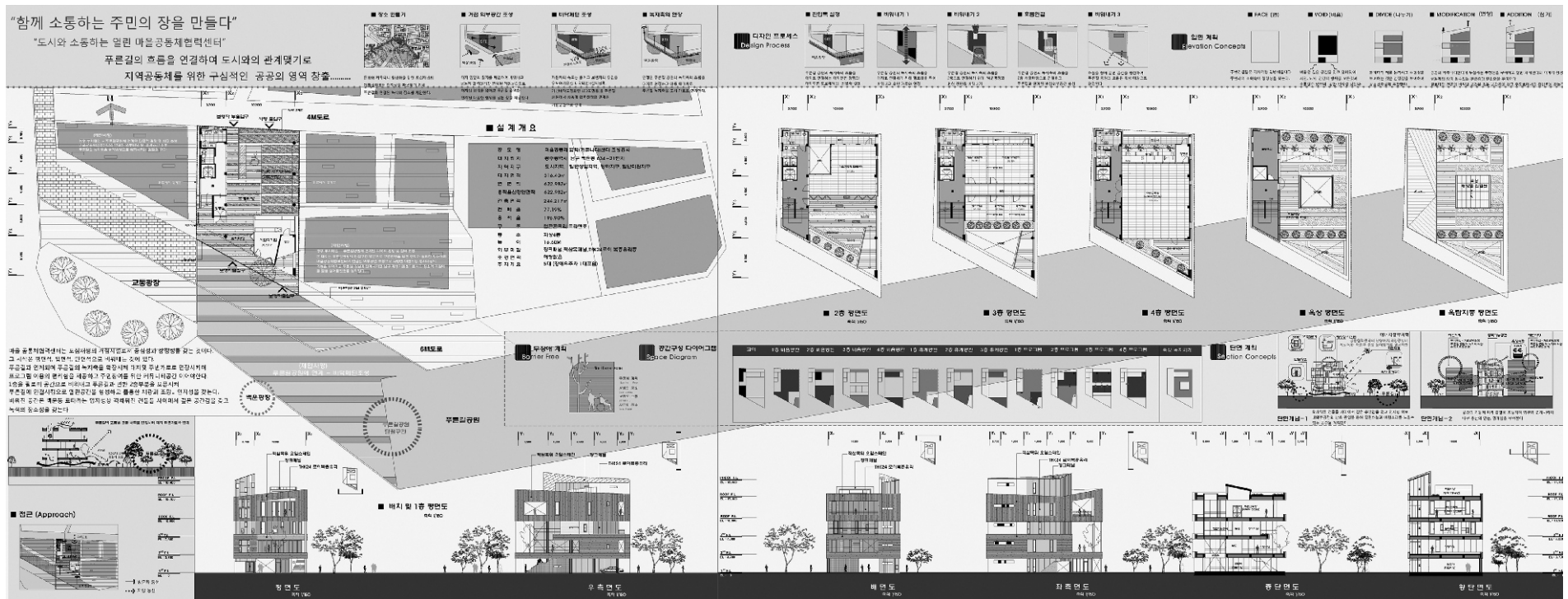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舊 백운지구대 부지에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조성하여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춘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고자 설계공모방식을 통하여 공모함.

발 주 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개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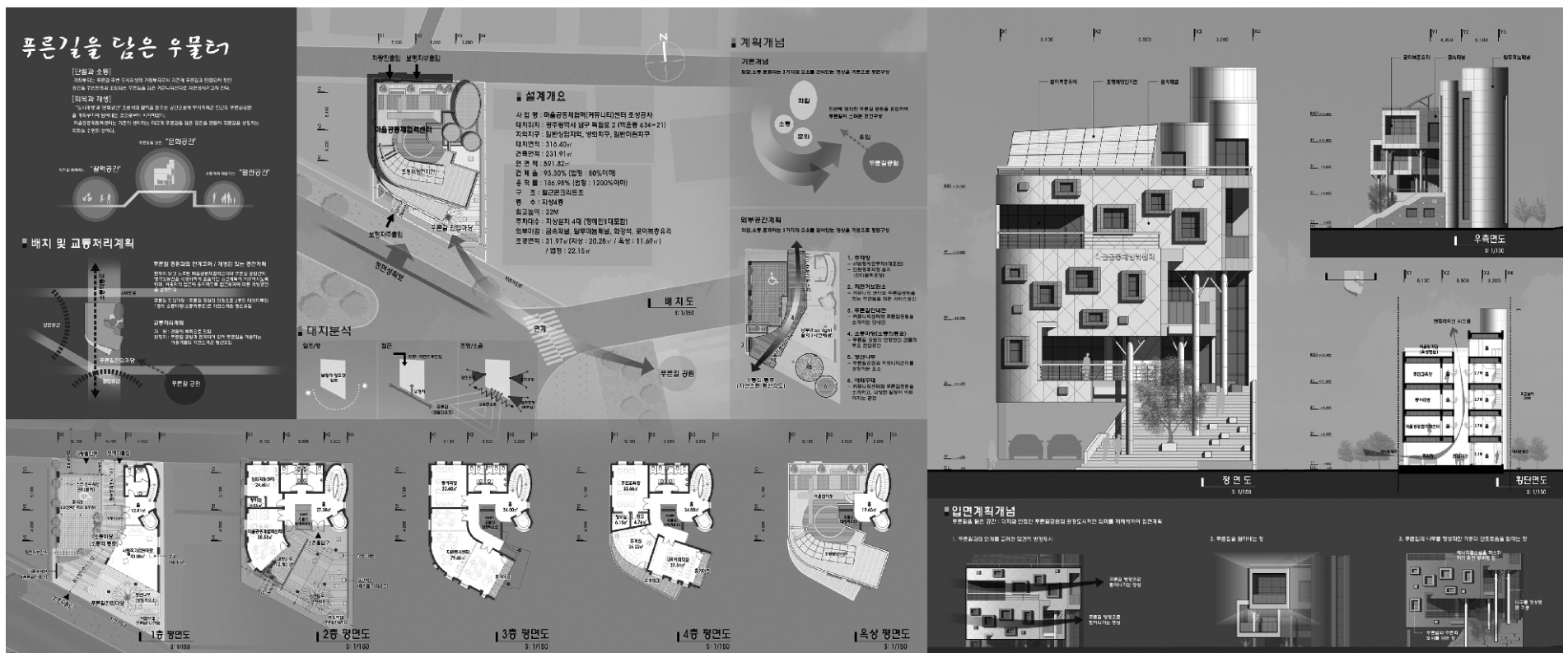
마을공동체협력(커뮤니티)센터 설계경기

당선작 정영법 건축사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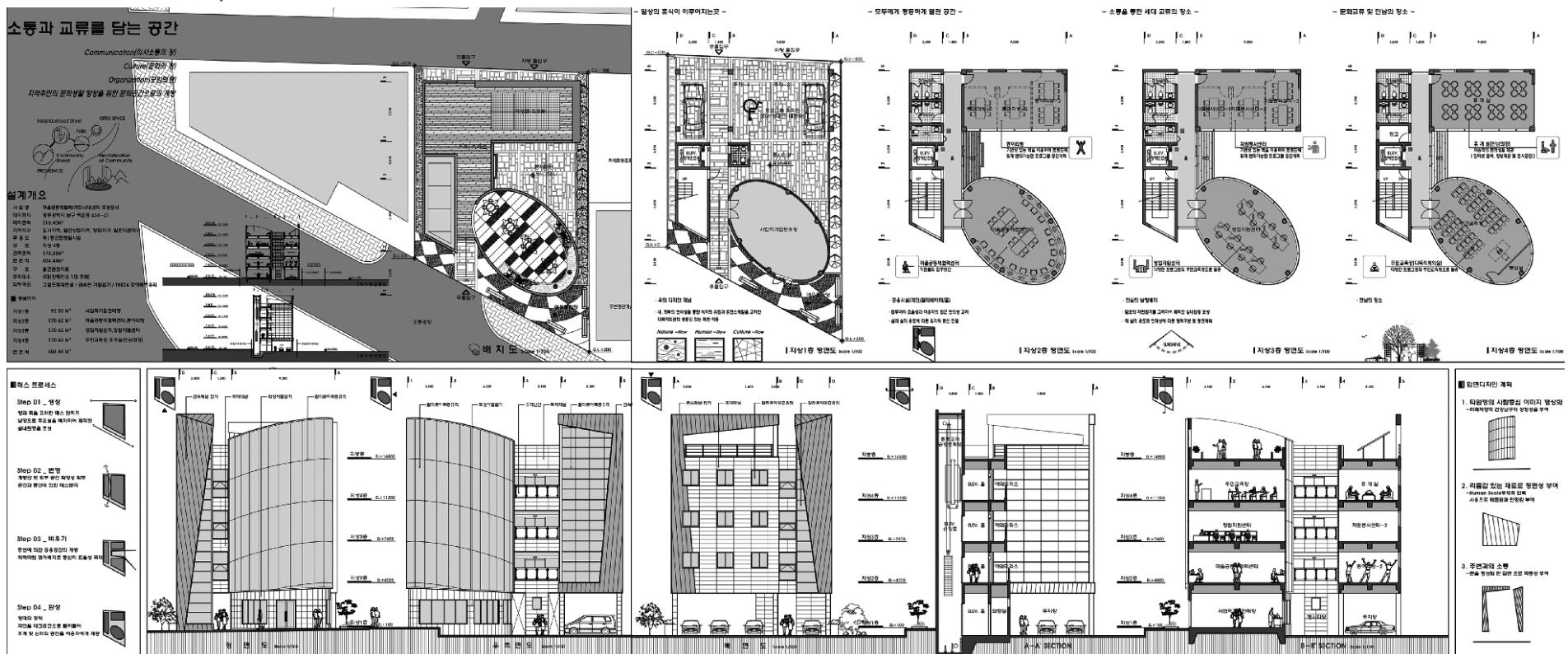
- 당 선 작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정영법 건축사
- 우 수 작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 가 작 신창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후규, 오기진 건축사



우수작 강필서 건축사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가작 김후규, 오기진 건축사 신창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_1부

» 마당으로 보는 3국 건축



이왕기 교수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Leewk@mokwon.ac.kr

2-1부 : 마당으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10월
※이왕기 교수의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 1편은 2013년 2월(39호)부터 2013년 6월(43호)까지 연재되었음을 밝혀둔다.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왕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건축역사학자이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의 건축역사까지... 동양 건축사에 대해 전문가로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본지에 연재코자 한다.

여러 건물을 한 곳에 둘 때면 반드시 건물 사이를 띄워두어야 한다. 비워두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만큼 중요하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비워두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보기에도 불편하다. 건물 사이는 적당히 떨어뜨려 비워 둬으로써 활용성이 커지고 쓸모가 많아지게 된다. 즉 집의 내부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는 원리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2500여 년 전에 노자가 말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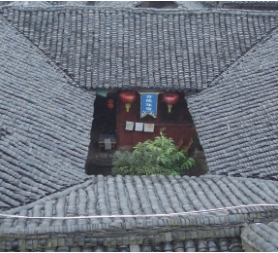
「埏埴以爲 當其無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가운데 아무 것도 없이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생겨나게 된다. 실(室)에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들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室이 쓸모 있게 된다. 그런고로 있다는 것은 이로운 것이며 없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도덕경』 제11장)

우리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빈 곳을 ‘마당’이라고 한다. 중국 북쪽지역에서는 ‘원자(院子)’라고 하고, 중국 남쪽 지역에서는 ‘천정(天井)’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니와(庭)’라고 한다. 한,중,일 세 나라의 마당을 보면 비워두는 방법은 같지만 저마다 다른 특징과 모양새를 지니고 있고, 마당 속에는 민족성과 지역성이 담겨져 있다.

1) 중국

중국의 전통적인 주택은 사합원이다. 즉 가운데 마당을 두고 사방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구조로 만든다. 작은 사합원은 마당이 1개이지만 마당이 수십 개인 대규모 사합원도 있다. 중국 사합원 주택의 마당은 크기는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형이다. 그것은 북쪽지역이나 남쪽지역 모두 같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 지역에 따라 마당을 만드는 의미가 다르다. 북쪽 지역은 마당을 통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넓어야 한다. 그래서 사방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나면 자연히 가운데 마당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집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마당을 ‘院子’라고 부른다. 원자에는 대개 2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석을 놓아둔다.



▲ 폐쇄적인 중국 사합원 주택의 원자



▲ 원자 내부의 모습

중국 남쪽 지방은 날씨가 따뜻하므로 햇빛을 차단하도록 마당을 만든다. 즉 마당을 작게 만들어 햇빛은 차단하고 최소한의 채광과 환기만 가능하도록 만든다. 마당에 서서 지붕을 쳐다 보면 마치 우물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다고 해서 ‘天井’이라고 부른다. 이 작은 마당에는 나무를 심을 수도, 장식물을 놓아둘 수도 없고, 지극히 폐쇄적이다.

중국의 마당은 규칙적이고 좌우대칭으로 반듯하며 외부로부터 완벽할 정도로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가능한 한 남쪽이 전면이 되게 만든다. 집 밖에는 가능한 한 마당을 두지 않는다. 이처럼 마당까지도 집안에 두는 것이 중국의 주택이다.

2) 일본

일본의 주택 중에는 중세부터 만들기 시작한 서원조(書院造)주택이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상류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택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겹겹이 배치하고 지극히 비대칭으로 만든다. 이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러 개의 마당이 만들어진다. 마당의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며 그것은 철저한 비대칭구조를 지니고 있다. 어쩌면 고도로 계산된 비대칭구조인지도 모른다.

일본 주택의 마당은 중국이나 한국의 그것과 달리 빈 공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꾸미는 공간이다. 즉 마당에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주택의 정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비해 일본은 마당을 이용하여 정원을 만든다. 그 정원은 지극히 인공적으로 꾸민다. 이 때문에 마당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동산, 수로, 수목, 수석, 화초, 연못이 마당으로 들어온다. 마당 주변 즉 처마 밑으로 뒷마루를 돌리면 마당(정원)은 관상(觀賞)의 공간으로 변한다. 그 마당은 아무나 볼 수 없으며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주택에서 창호지를 바를 때 한국처럼 집 내부에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바르는 것은 마당에 정원을 꾸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후 조건상 외부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

기도 하다. 일본의 마당은 온전히 두고 보는 관상공간이다.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이 아니라 건물과 대등한 또 하나의 주제공간이다.



▲일본 가마꾸라 세이손가꾸의 외부
마당에 정원을 꾸민 모습



▲일본 가마꾸라 세이손가꾸에 꾸민 정원.
물을 끌어들여 정원을 꾸몄다.

3) 한국

한국의 전통적인 양반주택에는 많은 마당이 있다. 사랑마당, 안마당, 행랑마당, 뒷마당, 별당마당 등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집 안에 두는 안마당도 있고, 집 밖에 두기는 행랑마당도 있다. 이 마당은 건물을 세우고 그 사이에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비대칭 구조로 만들어졌다. 안채 마당은 집안 여인내들을 위하여 외부에 드러내지 않지만 나머지 마당은 대부분 드러나 있다.

한국의 안마당은 가능한 한 비워 둔다. 중국처럼 나무를 심고 수석을 놓아두지 않으며, 일본처럼 정원으로 꾸미지 않는다. 그 마당은 내부공간으로 변용되기도 한다. 즉 집안의 대사가 있으면 작업공간으로 사용된다. 기껏 관목이나 화초 몇 그루, 장독대 정도로 소박하게 꾸미는 것이 가장 호사일 것이다.



▲예산 추사고택 사랑마당의 단아한 모습. 아무런 꾸밈이 없다.

한국 주택의 마당은 건물에 부속된 빈 공간이지만 언제나 활용되는 쓸모 있는 공간이다. 중국처럼 완벽한 대칭의 폐쇄공간도 아니고, 일본의 마당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정원도 아니다. 여러 개의 마당이 안마당처럼 폐쇄되기도 하고 사랑마당처럼 개방되어 있기도 하다. 있는 듯 비어 있는 쓸모 있는 공간이 우리네 마당이다.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 안마당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건축은 나의 노래, 나의 기쁨”, 행복을 설계하는 건축사 최근영 건축사와의 만남

전라북도 전주시 최근영 건축사를 인터뷰하며, 조이풀이라는 그의 사무소 상호답게 건축사라는 직업을 즐기며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직업적 즐거움은 그가 설계한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묻어 나오는 것 같았고... 작품활동을 통해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한 그의 경력과 외면적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에서 증명해 보였다.

다음은 최근영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삼정은 나의 숙명..(설계입문)

원광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무작정 독립기념관을 설계한 김기웅 건축사님(삼정 건축/서울)을 찾아가 받아 달라는 청을 해 인연을 맺게 됐다. 삼정 건축은 설계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무소였는데, 건축 설계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충실했다. 대지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와 목표는 물론 그 지역의 인문환경 및 주변지역의 환경인자 등을 조사하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체계화 시키는 작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고 해도 3~4일간을 몰두했다.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과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땅과의 대화 및 소통을 중요시 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밑거름이 되었다.

건축에 대한 철학...

‘법대로 집행하는 법관이 나쁜 법관이고, 환자의 요구대로 진료하는 의사가 더 나쁘고, 건축주의 요구대로 설계해주는 건축사가 가장 나쁜 건축사다’라는 말이 생긴다. 건축 설계는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의 삶과 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드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는 아름다움이 선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형상이 아름다우면 내용도 아름답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아름다움 속에는 시각적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감 쾌적한 활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시이불견 청이불문(視而不見 聽而不聞)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보인다. 이해할 수 없으면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 건축의 설계를 쉽게 설명하는 말인 것 같다 ‘시이불견 청이불문(視而不見 聽而不聞)’이라는 말이 있다. 보기는 보는데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도 사무소를 개업할 때의 그 열정과 마음으로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며, 공부하고 여행하면서 건축사의 길을 가고 있다.

존경하는 김기웅 선생님...

졸업 후 초년생인 나를 삼정이라는 못자리판에서 정성스럽게 키워주고 모내기를 해주어 벼농사를 수확하게 해준 김기웅 선생님을 숙명적으로 잊을 수 없다. 삼정 건축에서의 생활은 나의 건축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으며, 그 때의 식구들

과는 지금도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정식구나 다름없다.

에피소드...

장수경찰서 신축공사를 맡은 적이 있었다. 신축 위치가 장수 읍내에서 3km 정도 떨어진 개발지였는데 설계를 마치고 납품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신임 경찰서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남을 가졌었다. 도시개발 발전 방향과 장수 읍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시 읍내에 위치해있고 비어 있는 상태였던 장수고등학교 자리가 제격이라며 설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무료로 해달라며 하자 단호히 그 자리에서 거절했었다. 그 후 몇 번의 만남 속에 깊이 생각을 해보니 2년 후면 다른 곳으로 전근 가는 경찰서장이 자기 고향도 아니고 무슨 이득이 있어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서장의 철학과 직업관을 높이 생각하여 결국 무료로 설계변경을 해주었다. 그 분의 성함이 정철수 서장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만나보고 싶다.

봉사활동

로타리클럽 창립 멤버로서 작은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의 장로로서 섬김과 나눔의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건축사로서의 봉사는 본연의 임무인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봉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건축선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요즘 건축분야에 관련된 각종위원회나 세미나 등에서 건축사가 건축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영향력이나 발언권이 점점 축소되어가고 회의의 중심에서 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아마추어는 자신의 가능성만 믿는다는데 우리 모두 스스로가 건축문제에 관한 진정한 전문가가 되도록 사회의 인식을 바꾸며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인 것 같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은 것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는 물론 영양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했다.1965년도 창립된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취재 :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정리 : 객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북/조이풀 건축사사무소 최근영 건축사

건축문화사랑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니까. 최근영 건축사입니다.
저희 조이풀 건축사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28-3번지
조이풀빌딩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Tel. 063-278-7091~2
Fax. 063-278-7093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봉동 주민자치센터 계획안



▲ 전주백화점 –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대상작품
8M도로 측 코너에 공개공지를 두고 2층까지 필로티를 확장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기존상가지역진입의 활성화를 계획하였다. 전면 외벽재료는 삼각형 알루미늄바를 직접 디자인하여 공장생산 하여서 시공한 것이다.

우진문화회관 ▶
– 2012년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금상작품
공원속의 문화공간 도심 속의 자연 공간을 테마로 노출콘크리트 외벽에 담쟁이넝쿨을 심어 푸르름을 더했으며, 2층에 조경을 끌어들이는 가로경관을 연출하였다.



PN빌딩(People and Nature) ▶
삼천변에 위치한 이 PN빌딩은 사람과 자연이라는 회사이름대로 노출콘크리트에 자연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나를 강조하지 않고 조용히 서있는 건물을 계획하였으며, 수평선을 강조하면서 측면은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여 완결을 지었다.



조이풀빌딩 ▶
북쪽도로에 면한 대지로서 노출콘크리트에 수평 커튼월을 사용하여 단순, 담백함을 유지하면서 근린공원의 모든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어 외향시각과 내향시각을 고려하였다.



◀라우리안 빌딩
1층은 커피숍 2층은 주인주택인데, 6:4의 주거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3층에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아주 쾌적하고 분위기가 있는 공간이 되었다. 건축주의 요구조건이 노출콘크리트였는데 1층 전시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전달자로서 모습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진건설사옥
좋은 대지라서 1층은 피로티를 전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옥외에 직선계단을 두어 오르내리는 지루함을 감소시켰다. 2층에 테크를 설치하여 나무를 심고 햇빛을 사무실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3부 /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1부 / 건축학과 지망생에게 해 준 말 속의 건축현실 - 2013년 8월

2부 / 배제하는 건축 - 2013년 9월

3부 /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 10월

김광현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kkhf.ile@snu.ac.kr



1971년 건축학과 학생이 되었을 때 나에게는 대단한 꿈이 있었다. 어떻게든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이 언제나 있었다. 경기가 나쁘고 일거리가 준다고 하던 불경기의 시대에도 나는 대단한 희망이 있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건축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면 나는 무엇인가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2013년 건축학과 학생으로 있는 이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나보다 더한 야무진 희망을 가꾸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사회가 예전과는 달리 지나치게 조밀해져서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충분히 쌓았는데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자리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안스럽다.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좋은 교수로서 또 좋은 건축가로서 존중을 받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있는 젊은이가 뒤를 따라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건축을 평생의 업으로 믿고 건축하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며 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과 의욕을 줄 수 있을까?

다양한 사회진출을 위한 ‘건축설계업역 생태지도’ 필요

먼저 건축설계를 열심히 하되 앞길에 건축설계만이 있지 않고 이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건축설계 수주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아직 그 수요는 적지만, 건축설계를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나갈 수 있는 ‘건축설계업역 생태지도’를 그리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 땅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를 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모두 망라해 보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되든, 시행사가 되든, 보험회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연구소에 가든, 부동산 관련 업무가 되든, 마케팅으로 가든, 기획업무가 되든, 그 어느 것이 되든 이 땅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수많은 모든 가능성을 찾고 알려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다. 만일 이 일이 아직 어렵다면 제도로도 고쳐주고 새로 만들어서라도 그들이 갈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며 그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이게 기성세대가 해 줄 일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특징이 소량다품종 사회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들 중 몇몇이 어떤 분야로 진출하던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 주는 것이다. 비록 ‘소량’이더라도 ‘다품종’이 되는 것이 건축설계의 업역을 넓히는 길이며 사회에 부응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건축사의 역할을 넓혀가는 길이다. 이 정도가 되려면 건축단체는 이사회를 여는 회수의 10배쯤은 모여 한 해 내내 이를 논의하고, 이것을 일기예보 하듯이 수시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계기를 빨리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잘 보면 이미 이처럼 여러 분야에 나가서 보람 있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단지 그들은 분명히 건축계의 일원임에도 일원이 아니라고 보는 시선과 대접을 받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이에 대하여는 협회에 몇 번씩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말하면 뭣하나? 듣는 그때뿐이고 실천의 의지가 전혀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건축, 도시, 환경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제까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누구나 통감하고 있다. 부수고 만드는 소비형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속형 사회에는 분명히 건축의 영역이 확대된다. 그렇다고 종래와 똑같은 일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래와 똑같은 졸업생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 건축실무에서 전국에서 배출되는 건축학 전공 학생이 지금 조건대로 생업으로 할 수 있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 대학은 건축학과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앞으로의 건축설계의 수주량 등과 비교했을 때 대학 정원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개발 성장 시대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 대학에 정원이 100명을 넘어 200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 이에는 건축 관련학과 모든 정원이 해당한다. 이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의 건축학 전공 학생들에게 희망이 크게 감소해 버릴 것이다.

건축전공 정원은 줄이고, 건축사 합격률은 높여야...

그리고 건축사 합격률을 높이자. 지금 매년 건축사 합격률은 대략 10% 정도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이 10%를 앞으로 한 30년 계속 유지한다고 치자. 그렇

다고 건축사 면허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은가?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는 졸업자가 5년을 공부하고 실무수련까지 쌓고 시험에 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아마도 이 면허는 크게 외면당할 것이다. 올해는 건축학 전공 5년제 졸업자가 건축사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해다. 그렇다면 건축사면허를 건축설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광역적인 건축 업무에 건축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건축사 합격률을 높이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 많이 합격시켜 사회의 다른 곳으로 많이 진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달라져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희망은 정당한 보수다. 건축사사무소는 미래의 건축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다른 직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의 하한선을 맞추는 운동을 벌려야 한다. 물론 이 일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듣자마자 금방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지만 밖에서 적게 받으니까 안에게 적게 주자는 생각을 이제는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것도 모두 그리고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동참하여 이들의 급여가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그 하한선을 맞출 수 있게 건축설계대가를 확보하도록 운동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건축설계 전에 응당 받아야 하는 비용을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것만이라도 제값을 받으면 약 20% 이상의 상승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젊은 미래의 건축사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 의사들을 보라. 그리고 약사들을 보라. 뜻을 합치면 할 수 있다.

국가, 학계, 건축단체 모두가 나서야 할때...

대한민국 좁은 땅에는 건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지나치게 많고, 목적과 뽑는 방법이 매한가지다. 그리고 상으로 상장과 상금을 준다. 그러나 상금 대신 실제로 지어지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그들에게 주자. 그것이 버스 정류장이든 공원의 파골라든 학교의 어린이 놀이터든 무엇이든 좋으니 상금 대신, 작고 적더라도 실제로 지어지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신진건축사에 대한 배려인데, 이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상장과 상금과 경력으로 격려하기보다는, 겉보기 편의주의의 전 자입찰로 정해 버리는 수많은 작은 공공건축물을 이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문화관광체육부는 차세대건축가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 협회의 협력을 받아 선정된 젊은 건축가에게 비교적 낮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니 상금 대신에 국가가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이것으로 유수한 외국건축사사무소에서 1년 내지 2년 실무를 쌓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추천해 주는 제도를 만든다면, 비록 인원수는 적을지라도 학생과 젊은 건축사 지망생들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을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건축학과의 학교 교육이 오로지 설계만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하는 건축교육은 분명히 절름발이다. 건축학과 학생에게 희망을 주려면 건축은 설계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건축을 설계한다. 건축을 세운다. 건축을 세우게 한다. 건축을 사용한다. 건축을 본다. 건축에 대하여 쓴다. 건축을 그린다. 건축을 고친다. 건축을 부순다. 건축을 남긴다.” 등 건축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다는 것 위에서 가르칠 일이다. 이들이 퍼져 나갈 곳이 넓고 많다.



▲ 서울대건축학과 학생, 학과 총집합 “2012 쌓기”에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건축의 미래’를 연재해 주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광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건축이란 쓰는 건축(用), 보는 건축(觀), 읽는 건축(感)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다.”_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지난 10월 4일 금요일, 본지 서재형 편집인과, 김미영, 이광영 편집위원이 순천대학교 공과대학1호관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이동희 교수는 올해 4월 초 자신의 건축 에세이인 '이동희 교수의 미국건축 이야기(애플트리, 2013)' 저서 발간 기념으로 순천시민들과 함께 '북콘서트'를 열어 방송과 신문에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동희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시인을 꿈꾸던 소년이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으로

중학교 시절에는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인문계가 아닌 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 입학하고 졸업 후, 건축설계사무소 근무를 거쳐 대학 건축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무조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학연수를 마쳤고, 이 때 틈틈이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건립된 눈부신 현대건축들을 탐방하며 그 매력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으로 복귀해 건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졸업 즈음 (주)경남기업 인턴을 거쳐 (주)현대건설 최종공채에 합격해 해 신입사원 연수에 참여하려던 순간, “나의 꿈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란 목표를 새삼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취직을 취소하고,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는 유학시험에 합격한 것도, 유학비용이 해결된 것도 아닌 또 한 번의 무조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후 유학생 특별전형이 아닌 일본 지원자들과 나란히 시험을 봐 어학예비 과정도 없이 석사과정에 합격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으로 선정되어 박사학위까지 무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건축 분야 연구 업적

저의 연구업적과 관련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건축’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원 과정에서 ‘농·산·어촌 그리고 낙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오이타현 내 58개 시정촌(市町村, 우리나라의 시군읍면에 해당)과 낙도들을 수시로 방문해 각종 복지시설들을 답사하고, 해당 공무원 및 직원과의 면담, 수백 명에 이르는 노인들과의 집중인터뷰 등을 통해 귀중한 연구자료들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때까지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던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연구가 본격적으로 농산어촌지역으로 확산돼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후에 결과들은 박사학위 논문(과소지역에 있어 고령자생활복지센터로의 생활거점이동에 관한 연구)으로 저술되었으며, 귀국 후에는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교수로 초빙되기도 했는데 그 무렵 일본건축학회 학회지 2003년 10월호의 ‘고령자를 위한 건축연구’의 역사적 집계도표엔 본인의 연구주제가 두터운 그래프로 표시되고, 신문 및 잡지 등으로부터의 취재요청과 관련기사가 실리는 횟수가 잦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순천대학교로 귀국해서는 오이타현과 지리적·사회적 상황이 매우 비슷한 전남의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건축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학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건축학회 혹은 건축단체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평소 느꼈던 점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지방 건축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의 건축학도나 건축인들이 특별 대우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연고와는 무관하게 그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임을 맡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래를 위한 성장기회의 균등배분’이란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성장할 기회가 지방에도 공평하

게 주어지고 있는가? 단순히 인구가 많은 서울지역에 학습환경·사업환경 등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삽니다. 우선 지방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살아야 서울 사람들에게도 일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적인 영역까지는 힘들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만 큰 지방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학생에 대한 취업할당, 지역 기업의 일거리 확보, 교육 및 문화 인프라의 균등 구축 그리고 건축학회 및 건축단체의 지방연고자 활동영역 배분 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선 타지로부터 들어온 외부인을 지연·학연과 연계해 배척하는 일 없이 상부상조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방으로 새로운 문물이 유입돼 내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건축학자로서의 철학에 대해...

평소 학생들에게 “건축이란 인간(人間)과 공간(空間)의 관계맺음이 흘러가는 시간(時間) 속에서 변용(變用·變容)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인간과 공간의 만남이 현재적이고 평면적인 개념이라면, 거기에 시간이 보태짐으로써 비로소 미래적이고 입체적인 개념으로 승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설계에 있어, “형학(形學)은 몸을 편하게 해주고, 미학(美學)은 눈을 즐겁게 해주고, 시학(詩學)은 가슴을 울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튼튼하고 편리한 건축을 위해서는 형학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는 미학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건축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학에 대한 경지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쓰는 건축(用), 보는 건축(觀), 읽는 건축(感)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훌륭한 건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학생에게 결코 성공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 단지 기본동작과 품세만을 익혀서는 어느 한 사람 제대로 쓰러트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힘을 기르고 손발 끝에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을 배울 때 그저 수업이나 대충 참여하고 부과되는 과제 해결에만 급급해 한다면, 졸업 후 자기 집 하나 제대로 설계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단하게 설계과정을 연마하고, 관련도서를 찾아 읽고, 공부거리를 찾아 사회로 나가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남건축 집필을 위한 건축사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업으로 ‘전남건축’이란 책을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집필중입니다. 본인은 ‘현대건축’편을 맡았는데 관련 자료가 부족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전남지역에 건립된(광주 제외) 건축물 중에서 각종 건축상을 수상했거나 전문잡지에 게재된 작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축사님들께서 자신의 우수한 설계작품이 학회 공식 출판물에 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동희 교수 연구실 : 061-750-3529)

정리 : 광속국 전남기자 gjkira@empal.com



전남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며,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 및 복지시설의 건축계획설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환경 만들기 등입니다. 현재는 건축과 도시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강연활동 및 집필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에 관심이 깊어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최근 10여 년 동안은 한국전통건축의 미학과 가치를 사진으로 외국에 알리는 일에 몰두하는 가운데, 그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수차례 개인 사진전과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동희 교수는 한국전통건축 분야에 관심이 많다.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되어온 공부는 일본 유학과 해외 배낭여행, 그리고 귀국후 학생들과의 답사 및 연구 활동에까지 이어졌고, 외국에서 통산 9번의 사진 초대전과 11번의 건축강연회가 열리기도 했다.
▲미국 신문에 게재된 한국전통건축 사진전 기사



▲ 인근 고등학교에서의 건축학 강의



▲ 학생들과 복지관에서 장애체험실습



▲ 순천시의회에서의 복지건축 강연



▲ 미국 대학에서의 한국전통건축 강의



▲ 일본 잡지에 게재된 복지건축 전문가 기사

졸업작품전 수기1

김소라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497410㎡의 생각에 빠지다.



‘497410, Regeneration in Jeonju’란 제목으로 전북대학교 졸업작품전시회가 진행됐다.

건축학과에서는 전주시 북동부에 위치한 전주역, 덕진공원 - 동물원을 바탕으로 각 공간에 숨겨진 다양한 가치 발굴과 이를 통한 도시 재생 및 환원을 위해 경계 허물기와 전통문화 허브조성 등을 제안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교

감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 건축공학과에서는 새로운 건축의 원형으로 정착되고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도시재생을 기획하여 도심의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고 용도복합에 의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새로운 전주시 공공건축물로 제안하는 프로젝트와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건축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인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구조, 기능, 미와 함께 환경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거주자에게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 때의 부지면적을 모두 더하면 총 497410㎡로 2013년도 졸업전시회의 제목이 완성된다.

크게 네 개의 프로젝트로 나뉘어 각 개념에 걸맞게 패널과 모형 각각에 담겨 있는 선배들의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볼 수 있었다. 전주시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전주역과 요즈음 일회성에 그치는 덕진공원 ~ 동물원 부근에 대해 새롭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이 서로 상반되면서 인상 깊었다. 또, 주차시설 부족으로 골치를 앓는 도시문제를 조금 더 건축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웠다.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넓게, 두 번째에는 동아리 선배에게 졸업전시회의 콘셉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세 번째에는 혼자서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처음에 간파했던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해도 되고 궁금증도 생기게 되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는 후배의 궁금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작품이 있었던 반면 방문하는 세 번 내내 만날 수 없어 아쉬웠던 작품도 있었다. 사실 선배나 후배와 함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평소에는 잘 할 수 없다.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인데 나는 졸업작품전시회 만큼은 후배와 선배가 건축에 대해 조금은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겠지만 이때 만큼은 자신의 노고가 담긴 작품 앞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 건축의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전시가 진행된 박물관을 나오면서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아마 이번에 느끼고 배운 조각들을 모아 큰 퍼즐을 반드시 완성하여 있을 것이다.

졸업작품전 수기2

탁지민 학생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지금은 공사中...(동신대학교 졸업작품전 준비과정)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 때에 저도 매일 밤을 지새며, 모형과 판넬을 만들었는데, 어느새 후배들이 주인공이 되어 졸업작품전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다른 학교들도 졸업작품전을 준비하거나 이미 끝난 곳도 있고, 다들 사회로 나갈 준비를 천천히 밟아 가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 긴장을 한다고 할까요?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매년 동신대학교에 설계하는 인원이 줄어들어, 이제는 설계실이라는 실명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설계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어 아쉬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와의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보단, 설계에 인맥을 이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력이 있던 없던 종종 후배들과 한 팀이 되어 대학생활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미니어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찍었는데, 실패에 실패를 수차례 거듭하여 다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저희 동신대학교 졸업작품전은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에서 10월 10일 날 개최하며, 이 기사가 나갈 때에는 아쉽게도 이미 끝난 다음일 꺼라 예상되지만, 많은 귀빈께서 참석하여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던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제목을 ‘지금은 공사中’이라 지은 이유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뜻은 공사현장이나 설계과정 등 하나 하나 각 파트에 맞게 공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졸업작품전을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밤을 세워가며 하는 것처럼,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 ‘지금은 공사中’이라는 타이틀을 올려놓았는데 쫘 억지스러우실까요? 물론 이미 이 길을 걷고 계시는 선배님들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빠르면 이번 해부터 말단 직원으로 선배님들 밑으로 가서 일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 인재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는 아직 부족한 만큼 조금만 더 배려 해주시고 발전하도록 많은 조언과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달을 끝으로 학생기자라는 신분을 벗어나 사회의 한 일꾼으로 전선에 뛰어 들어가 합니다. 겁도 나고 반면에는 설렘도 있지만 어디서든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선배님들께 찾아 가겠습니다. 동신대학교 건축과 졸업작품전(10월 11일까지/중앙도서관 5층)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졸업작품전 수기3

천열홍 대학원생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제54회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을 마치며..



▲ 졸업작품전 행사일환으로 진행된 홈커밍데이

조선대학교 건축학부는 제54회 졸업작품전을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건축학과 25명, 건축공학과 50여명의 졸업생 작품 및 각 학년별 설계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됐다.

5학년은 자유주제로, 4학년은 조선대학교와 서남동 일대 재개발, 3학년은 공공시설 프로젝트, 2학년은 개인주택, 1학년 화장실 및 폴딩아키텍츠 프로젝트

의 결과물을 전시했다. 2학년의 경우 프로젝트별 동영상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의 영상화를 꾀하기도 했다. 필자는 현재 학과 조교로 근무중이어서 졸업작품 준비위원회에 참가하게 됐다. 교수님과 조교, 학생회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8월 20일경 1차 회의를 통하여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졸업작품전 일시 전 추석연휴로 인한 차질을 우려하여 포스터와 작품집, 초청장 편집을 선결하고 연휴 후 최종점검하기로 계획했다.

포스터와 책자를 선결하기 위하여 5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받아 4학년 및 5학년 학우들과 포스터 제작에 들어갔다. 포스터는 전작의 구성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졸업작품의 다이어그램과 콘셉트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구성해 나아갔다. 이렇게 완성된 포스터와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준비작업은 일단락되었다.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주인공인 5학년 학우들을 위하여 많은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경험하기에 현재 5학년 학생들과 타 학년 학생들 간의 교감과 소통이 미흡한 상황으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타 학년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점은 간파해서 안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현재 건축학과는 각 학년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공급되어 환경의 질을 높여주고 있으나 그 공간에 갇혀 교류가 부족한 점은 개선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이번 건축전은 건축전 일환으로 초청강연과 함께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2회를 맞이한 홈커밍데이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남의 장으로 각 분야 10여 명의 졸업생을 초대하여 진행됐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문점을 알아본 결과 진로방향, 취업준비(자격증, 포트폴리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졸업생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아갔다. 교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을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졸업생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작은 바람이 들기도 했다. 많은 질문 중 가장 흥미로웠던 질문은 포트폴리오 제작에 대한 부분으로 졸업생 중 일인은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부터 타 학교의 동향, 그리고 주안점을 후배들에게 언급했다.

졸업작품전을 마치게 되면 취업전선에 뛰어들 5학년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4학년,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야할 저학년에겐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기고

박종성 학생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순천대학교 동아리 “공감” 필암서원을 다녀오다.



“공감”은 올해 초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를 중심으로 국제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로 임명을 받은 동아리이다. 동아리의 활동으로는 세계 유산 및 잠정목록 문화재 주변 청소와 보수 활동, 홍보활동 등이며, 평소 문화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우리의 문화재를 바로알고 지켜가고 널리 알리자 라는

취지를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동아리다. 이날 우리가 방문한 곳은 장성에 위치한 ‘필암서원’이라는 곳이었다. 도착하여 우리가 먼저 하게 된 일들은 봉사활동이 아닌 서원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어떤 곳이었고, 누가 머물렀는가 등을 포함하여 필암서원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아갔다.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대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와 그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김인후는 정조가 “도학과 절의, 문장을 겸비한 이는 오로지 하서밖에 없다”고 평가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는 경북의 소수서원 등 전국 8개의 대표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들을 들으며 우리의 조상님과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졌고 이는 충분한 자각과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인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

시간관계상 필암서원 주변의 정화활동과 김인후 선생님의 묘소를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주변정리를 간단하게 하였다. 그리고 등재를 위한 행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참여자체에 의의를 두고 뿌듯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상들을 바로알고 우리의 손으로 조상들이 일궈온 것들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 하루라고 마무리 짓고 싶다. 앞으로도 “공감” 동아리의 행보를 기대하며, 독자여러분의 관심을 희망해 본다.

전남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부회장에 선출

—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 2013 컨퍼런스에서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가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APNHR) 2013 컨퍼런스에서 2년 임기의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4월 한국주거학회 차기회장(2014년 5월부터)으로 선출된 손승광 교수는 최근 20여개국 130여 명의 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 2013 컨퍼런스에서 한국 주거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 자리에서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는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학술단체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의 주택 및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다.

한편 '2015 컨퍼런스'는 동신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손승광 교수가 의장을 맡게 된다.

전북 군산대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지난 9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2013 건축의 날'에서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가 지난 9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건축의 날'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문창호 교수는 1995년부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교육 및 사회봉사에 매진해 왔고, 대한건축학회 종신회원으로 전북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플로팅건축(floating architecture) 연구단 단장직을 맡아 새로운 건축산업 분야인 플로팅건축의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는 등 건축분야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편, 문창호 교수는 본지 학술지면(2013년 7월 호~9월 호/44~46호)을 통해 독자들에게 플로팅 건축에 대해 소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과 기술'이란 주제로 초청강연회 개최

— 10월 29일 오후 3시, 11월 14일 오후 3시 백악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

2013년 2학기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초청 강연회는 '건축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초청강연회는 1,2회 모두 본교 백악관 컨퍼런스룸(2층)에서 개최되며 제1회 초청강연회는 내년부터 기아타이거즈의 새 동지가 될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에 대해서 "광주 야구장 계획 및 시공"이라는 제목으로 김광재 이사(현대건설)를 초청하여 2013년 10월 29일 오후 3시에 강의가 진행된다.

제2회 초청강연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수족관 전문회사 중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주)아쿠아 건축사사무소'의 손웅익 건축사를 초청하여 '아쿠아리움 공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11월 14일 오후 3시

'건축과 기술'에 관한 특별강연을 개최함에 따라 건축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선정준 학생기자 charismasji@naver.com



기고

공직자에게 “오작교” 정신을



안용훈 과장 / 광주시 도시계획과

최근 우리나라 감독과 해외의 배우, 스태프 등이 대거 참여해 만든 '설국열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공공 얼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이 탄 열차에서는 열차의 핵심인 엔진을 장악하기 위한 꼬리칸 사람들끼리 치열한 투쟁이 벌어진다.

열차가 궤도를 따라 쉼 없이 달리는 중 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는 손에 힘이 절로 들어간다. 다리를 무사히 건너야만 마지막 생존자들의 삶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고 인류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설국열차'에 올라 이동을 시작한다. 영화 속에서 다리는 위험한 순간으로 그려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산지역을 이어주는 꼭 필요한 존재로 부각된다. 영화의 다리처럼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건네줄 다리가 되어주는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다리'를 떠올리면 태평양 바다위에서 붉은 빛을 발하는 샌프란시스코의金門교가 먼저 그려진다. 그만큼 영화나 여러 사진을 통해 아름다운 다리의 상징으로 각인된 탓이다. 다리가 만들어내는 멋진 광경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겹쳐지는 하버 브릿지도 빠질 수 없다. 바다 빛깔과 대비되는 하얀색의 건축물, 다리 구조물의 풍경은 관광명소로 세계인을 끌어 모으고 있다. 옛 모습을 간직한 도시와 어우러진 프라하의 다리, 야경의 멋을 한껏 높여주는 부다페스트의 다리 등 다리는 세계 곳곳에서 명소의 이름값을 더욱 올려주고 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인천 섬을 연결한 영종대교, 서해고속도로를 잇는 서해대교, 부산 앞바다의 명물로 등장한 광안대교, 전남 섬들을 이어주는 연륙교 등 규모로나 역할로 봐도 세계적 다리에 견줄만한 다리가 많다. 이렇게 놓인 다리로 사람이 오고가고 언어가 소통되며 삶의 공동체가 형성돼 왔다. 그렇다면 다리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필자는 하늘의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를 위해 까치와 까마귀가 만들어준 다리, 우리의 오작교(烏鵲橋)가 다리의 시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오작교'를 만들어낸 우리 선조의 상상력은 세계적으로 길이와 높이를 내세우는 다리들 앞에 당당히 이름을 내놓을 만하다. 특히, '오작교'는 단순히 공간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잇고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이야기가 곁들여지면서 그 어떤 다리보다 아름다운 다리라고 자부한다.

지난 주말 우리 부서 직원과 가족들은 광주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 등을 찾아 예술작품과 유물 등을 관람했다. 매일 사무실에서 바쁜 일정에 부대끼며 지내는 동료와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감싸안아주는 마음의 다리가 하나 놓였다.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오작교'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와 자원봉사자, 기부자들을 이어주는 일이 공직자의 소명이라면 공직자야말로 '다리'의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시민을 위해 양보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우리의 선조들은 형상을 너머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오작교'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도 어려움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힘닿는 데까지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도움이 되어줄 이를 기꺼이 찾아나서는 '오작교 정신'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란다.

김제시건축사는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조성하여
지평선의 고장 김제건설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김제지역건축사회 김형운 회장 외 회원일동

하정규/ 유천 건축사사무소
김태운/ 공간 건축사사무소
김병술 / 토가 건축사사무소
정주용/ 가림 건축사사무소
김형운/ 건축사사무소 금강
손윤희 / 휘경 건축사사무소

서봉욱/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김규섭/ 토담 건축사사무소
류충렬/ 금만 건축사사무소
이영준/ 아리울 건축사사무소
김종욱/ 건축사사무소 칸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광주시 복싱선수단 격려 방문

—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선전 기원차 방문해 격려금 200만원 전달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은 지난 10월 9일 광주 염주체육관을 방문하여 광주시복싱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안길전 회장을 비롯하여 강필서, 정명철 부회장 등 선수 및 코치진 30여명이 함께 했다. 안길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이번 전국 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주건축사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건축사회는 1995년부터 광주시 복싱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격려방문하고 있다.

한편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건축사회,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임원 임기 3년 변경 등) 원안 의결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9월 27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의 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293명 중 148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광주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에 대해 원안 동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의원 및

건축사회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제21조 제1항), 건축사법에 따른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만료일로부터 갱신등록을 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정지(제11조 2), 총회 및 이사회 성립 및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제16조,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6월로 변경하여 전·후반기로 회장 임기와 같이 함(제30조) 등이다.

또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공영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건축사 자정방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회원단합 및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경남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발표

— ‘쌍촌동 다숨카페’,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정원’ 선정



▲쌍촌동 다숨카페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정원

광주광역시시가 주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나무심는 건축인’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올해 수상작이 발표했다. 민간부문에 ‘쌍촌동 다숨카페’와 공공부문에 ‘광주시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 주거부문에는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정원’이 선정됐다.

민간부문의 ‘쌍촌동 다숨카페’ 건물은 주택가 도로변 2층 건물로, 접한 도로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과 단절된 높은 회색 담장을 과감히 허물어서 주변과 소통하고 있다. 특색 있는 조형물을 제작하고 조경을 앞 마당에 조성해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의 취지와 부합된다는 평이다.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은 기존 지형지물을 이용한 건축으로, 옥상에 산책로와 쉼터, 조경을 갖추고, 가로변 어디서나 진입할 수 있어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는 넓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소통하고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공원의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주거부문의 ‘수완지구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정원’은 입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 조형물과 수목 등이 조화롭게 배치돼 그 속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연출하고, 동(棟)을 연결하는 물길은 주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여유로움으로 높이 평가됐다.

이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건축 도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前 회장,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받아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로 인정받아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前 회장((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대표)이 지난 9월 26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3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심상봉 前 회장은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전국 1만여 명의 건축사가 참가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주관,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한·중·일·베트남 4개국 국제건축문화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건축계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상봉 前 회장은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대표, 광주검찰청 검찰 시민위원,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건축의 날’은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건축인의 최대 행사이며,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을 기념해서 제정되었다.

전라북도,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11월 4일부터 9일까지 도청 공연장, 로비 등에서 전시·체험·학술발표 등 진행

전북도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건축인의 화합과 위상강화, 건축문화 인프라 확충 및 미래 전북의 건축 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3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개최된다.

전북도와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회장 김남중), 대한건축학회 전북도회(회장 강대호),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회장 유남구),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회장 김희순),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재호) 등 전북 도내 건축 관련 5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북 건축문화제는 “경계 그리고 어울림”의 주제로 오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도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화제는 4일 작품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며 전시와 강연, 도민참여 프로그램(건축올림피아드 경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건축상담 코너 등) 등이 행사기간 내내 이어진다. 전시행사에서는 건축문화상 응모작품, 도내 건축사 작품, 일본·중국 건축사 작품, 한옥건축 작품 등의 전시로 일본, 중국 건축문화도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건축문화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행사 일정)

- » 8일(금)/4층 대회의실 : 건축문화상 시상 » 8일(금)/3층 중회의실 : 건축설계·시공 사례 발표(주관 : 건축사협회)
- » 8일(금)/3층 중회의실 : 건축 학술발표 및 포럼(주관 : 건축학회, 건축가 협회)
- » 8일(금)~9일(토)/도청 공연장 : 건축영화 상영 » 8일(금)~9일(토)/도청 로비 : 집짓기 상담
- » 9일(토)/도청 공연장 로비 : 초등학교 내가살고 싶은 집 그리기대회
- » 9일(토)/도청 대회의실 : 고등학교 건축올림피아드
- » 9일(토)/도청 로비 : 건축모형만들기 체험 » 4일(월)~9일(토)/작품전시(건축, 서화, 한옥)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원, 방수스페이스프레임 특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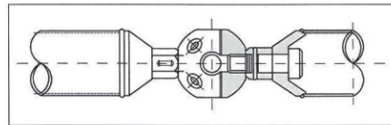
— 공사비 절감 효과와 정밀시공이 가능하여 건축사(설계자)의 의도가 완벽히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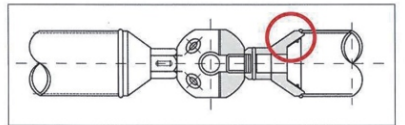
일반 SPACE FRAME



WATERPROOF SPACE FRAME



내구성 : 볼트와 콘사이로 수분유입으로 부식방지 우려



내구성 : 볼트와 콘사이의 방수구조로 수분 유입을 막아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

광주건축사회 회원인 강현구 건축사(조형 건축사사무소 (주))가 방수스페이스프레임을 특허 출원하여 화제다.

방수스페이스프레임(특허 제10-1295346호)은 일반 스페이스프레임의 볼트와 콘 사이에 방수구조로 수분 유입을 막아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특허 출원됐다.

체육관이나, 강당, 전시실, 툇게이트, 컨벤션센터 등 기둥 없는 대공간 구성이 가능하고, 일반 철골구조나 콘크리트 쉘구조보다 경량이므로 기둥단면이나 기초단면을 줄일 수 있어 공사비가 절감된다.

또한 자체 방수가 되고 진동에 대한 풀림장지기능이 추가 되었으며, 기존스페이스프레임보다 내구성이 향상되는 등 여러 장점들이 많다. 특히 기하학적인 자유곡선을 만들 수 있고 정밀시공이 가능하여 건축사(설계자)의 의도가 완벽히 반영된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조형스페이스 프레임코리아(주)[Tel. 062-384-2225]로 연락하면 된다.

“사람 키우는 푸아 그라(foie gras) 농장” 원룸을 보며 느끼는 소외

햇빛 확보는 바라지도 않으니 대학 근처 원룸에 “습도법”이 만들어 진다면 어떨까? 5학년이 되고 학교 과제에 집중하려고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났다. 3개의 계절을 지나면서 원룸이 습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비가 온 날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안쓰면 옷장에 있는 옷에는 곰팡이가 생겼으며 침대는 축축하게 젖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습도가 어느 정도이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여 건습구계를 사서 집안에 달았더니 건구 27도 습구 26정도 1도차이가 나면 습도가 92%이다 온도계가 중국산이라 잘못된 수치인지 알았다. 원룸, 이것도 차가운 시선으로 보면 사업인데 효율을 따지지 무슨 인간성을 찾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사람이니 아닌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참 성장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 아니면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다.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햇빛은 몰라도 쾌적한 습도를 제공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건강, 정서, 재산과 연관이 있으니 말이다.

평면형태와 면적대비 창문 크기나 개수를 법으로 정해주던지 어떤 연구기관이 원룸의 단위평면 몇 가지를 연구해서 최적성능을 제안하고 여기서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 성능표시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물의 외관에 등급을 붙여 놓는다면 개선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살 곳이 없었을 것이니 이러한 조건이라도 감사해야 맞는 것일까? 나의 생각이 80~90년대에 태어나 먹고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온 세대의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건축이 돈만을 마주보며 올라서는 모습이 불편하다.

최근 멀리 사는 지인의 이사 때문에 신축 원룸을 대신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학교 근처에 신축된 두 원룸을 평소에 염두해 두고 있어서 두 곳을 들렀는데 건물에서 건축주의 인격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두명의 다른 건축사가 한집에는 이득만을, 다른 한집에는 인간성만을 이야기 했을지 모른다. 한집은 4층 규모, 한층 마다 4호 각호는 창문이 다른 방향으로 2개씩 있었고 집기들을 배치하는데 설계자의 고민이 느껴졌었고, 다른 한 건물은 4층규모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한층엔 8~9호 정도가 있었다. 평면은 당연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원룸처럼 길쭉한 평면에 창문은 하나 난 지인에게 내가 나름 건축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조언하면서 다른 원룸은 들어갈 가치조차 없다고 말해 버렸다. 그리고 좁은 방에 어떻게 창문을 2개씩 만들 것이며 동선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자의 고민이 묻어있는 방으로 계약을 하러 가자고 했다.

재미있는 결과는 내가 늦은 시간 스튜디오를 나와 집으로 가는 동안에 내 눈 앞에 나타났다. 두 원룸 중 땅에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낼 작정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 원룸은 완공 한 달이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방에 불이 꺼져있었다. 반면에 건축주와 설계자가 거주자의 환경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한 원룸은 4층까지 전부 계약이 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분주함이 엿보였다.

절대적인 원룸 공급량은 이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 같은데 시대착오적인 건축주와 설계자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 합법적이지만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진 건물의 공실률은 높고, 환경을 고려하고 사람을 생각한 건물은 공실률이 0에 가까운 현상 바로 그것이 설계의 힘일 것이다.!

「관점을 디자인 하라」

박용후(기업인) 저 프롬박스 2013.07.12



한때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일컫는 말이 유행했었다. 역발상, 이젠 이보다 한 단계 위의 방법, 기업과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버린 대한민국 1호 관점 디자이너 저자 박용후 이다.

이 책에서는 편견과 착각에 갇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회와 진실을 지나치는 어리석음을 통렬히 비판한다. 정보와 말의 홍수 속에서 남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저자 박용후는 관점의 변화를 강조한다. 관점의 변화를 통해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Best One이 되기보다는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Only One이 되는 퍼스트무버의 길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남들보다 폭 넓은 생각, 새로운 관점, 미래의 트렌드를 알고 싶다

오 수 (午睡)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컴퓨터 자판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졸음이 온다

오라는 밤에는 아니 오고
눈치도 없이 한낮에 밀려온다

어떤 이가 눈치 없는 약을
지어 보낸다는 걸 보니
눈치는 안 늘고
염치만 늘은 건지
자꾸만 꾸벅대다 놀란다

시험지 받아 놓고
잠들어 버렸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철없던 시절의
잠이 온다

어째 조금 이상하다
오타도 안 나오는 것이
이제는 꿈속인가 보다

컴퓨터 앞에서
오는 잠은 편안하다
자판기 위에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눈치 있는 사람들도
조는 졸은 모르고
일하는 줄만 안다

사는 게 이런 건지
오는 잠을 피할 수가 없다

면 모든 것에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라고 한다. 궁금할 때마다 묻고 생각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만약 당신이 10~30대의 여성이라면 화장품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화장에 관심이 없는 10대 또는 20대의 남성이라면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를 떠올릴지 모른다.

이렇듯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많은 이미지, 즉 자신의 ‘관점’을 이끌어낸다.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 진화가 아니고 나에게 맞게 변화하는 것이 진화다. ‘관점-변화의 시작’ 즉, 자신의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 이는 세상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로 이루어진 총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차츰 사라져가는 “참새 방앗간”

시대흐름과 경제활동의 변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모습과 많은 부분 달라지고 있다. ‘방앗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 모습은 기능에 따라 위로, 옆으로, 창으로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깊은 듯 하다. 사라져만 가는 참새 방앗간을 연구하는 것을 나의 숙제로 정하여본다.(지난겨울 자료를 살펴보면)



새로운 광주 야구경기장 “광주 –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위용

32년간 광주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한 무등경기장이 그 쓰임을 다하고, 2014년 프로야구 경기는 새로운 신축 경기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약 2년여간의 공사 시간을 거쳐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는 경기장의 모습에 새로 쓰일 야구와 건축의 역사를 기대해 본다.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공영제도

건축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 건축은 국격과 그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척도입니다.
- 건축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를 담은 역사입니다.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창조자입니다.

- 건축사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 건축사는 수준 높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 건축사는 건축생산현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 공영제도의 시작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사감리 공영제 이제 모두 시작합시다!

“경상남도 거제에서 개최되는 광주건축사회원 워크숍(2013. 17 ~ 18)에서 회원 여러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저희 **동일교역**에서는 고밀도 목재패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LW PANEL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도, 명도, 해상도 등 표면의 색감이 고급스럽고 편칭메탈의 문제점인 오염과 평탄성 저하, 변색 등 성능 저하가 거의없으며,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주며, 항상 새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한의 환경과 오염에도 변색과 변질없는 내구성과 탁월한 유지 보수성을 지녔고 정교한 평탄성과 디자인성, 마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LW는 해외 및 국내 경쟁 사들의 롤모델이며 로망인 제품입니다. 수 많은경쟁 제품들이 현재도 실험적으로 출시하지만, 탈색과 변질..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락스ARUA PANEL(내부심지에 알루미늄층이 들어간 제품으로 모방과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품질을 견줄 만한 제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입품 조차 이태리,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제품들.. 모두를 비교하여도 2012년 현재까지 젠락스ARUA의 독보적 품질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널 겉모양은 똑같거나 더 화려한 제품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공을 할경우에 따른 문제점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동일교역은 고밀도 목재패널이 아닌 알루미늄심지”가 압축된 젠락스ARUA PANEL 제품입니다.

고밀도 목재패널 하자사진자료(실제사진입니다)



주력제품 : FBD PANEL

-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공사례사진



시공사례사진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